拘束된 民族醫術

李 昌 煥

一. 序 拘束史

東方의 하늘이 瑞氣衝天할 때 白衣民族은 天命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心性은 하늘에 뜻을 따라 溫順하였고 仁義와 禮智를 깨쳐 實踐에 옮기니 天地間에 和樂이 萬方에 펼쳐져 人間의 삶이 極樂과도 같았다.

或餘 巳毒과 猛戰에 몸을 다쳐도 天意를 받은 智慧로운 草藥으로 治癒하였다.

數萬類의 藥草와 鑛物, 動物 等等과 그 性分을 分類하여 正確한 藥性을 配合하여 相生과 相克을 區別하여 人體를 治療하였으니 얼마나 聖祖님들의 天慧的인 能力으로 人類를 數萬年이나 健康을 이어올 수가 있었다고 하겠다

宇宙의 神秘와 人間의 智慧로서 숨겨진 極秘의 哲學을 찾아 陰陽五行說을 全人類에게 解得시켜서 삶에 哀患을 없게 하여주신 祖上님께 感謝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옛부터 東夷란 民族을 體俱가 巨大하고 활을 매고 勇敢하게 對敵하여 家族과 國民을 지키던 武士가 되기도 하고 內的으로 溫和한 氣質을 가졌음으로 治政과 同族間에 不和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나라 이民族이 더럽고 추잡하고 奸邪한 무리가 생겨나고 殺母蛇와 같은 雜人들의 侵害로 因하여 民心이 騷擾되고 生活이 窮乏하니 굶주린 이리떼 같아 비로소 弱肉强食이 發生하였다.

五千年 아름답게 지켜온 우리들의 善心과 忠孝와 朋友와 愛民愛族 精神은 頹落하여 버렸고 그러므로 國力은 弱化되고 이웃나라들은 國力이 弱한 民族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리고 自己들의 領土化시켜 버린다

바로 우리는 日帝 36年이 이런 몰골로 牛馬之犬의 待接을 받고 살아왔다

解放이 된지 半世紀가 되었어도 우리는 精神을 못차리고 日帝들이 搾取하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아웅다웅 거리며 싸우고 있으니 또다른 强敵이 와서 그것 마져도 搾取당할 우려가 있다.

民族의 原來 本性과 처음 開國時에 純粹하게 지녔던 心性으로 다시 우리들의 人間性을 回復한다면 멀지않아 世界속에 人間待接받는 國家가 되리라고 본다.

우리도 倭政 36年間 民族魂을 抹殺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名稱이며 惡法 等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使用하면서 民族的 羞恥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장차 後孫들에게 무슨말로서 謝罪할 것이며 더러운 五慾때문에 高貴한 祖上을 욕보이고 밤낮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꼴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擔當公職者들은 돈에 눈이 어두어져 正不法을 가리지 않고 許可를 내어주고 내나라 내민족의 寶玉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行爲를 한지가 近50年 日帝가 파먹던 것과 36年을 合치니 近 90年의 긴 拘束史를 부끄러워 어디가서 呼訴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럽다.

二. 和解法으로 民族醫術發展을

(가) 法을 定하되 國家와 國民의 利害를 가려서 決定하여야 될 것이다.

選擧때 標가 많이 나오는 團體에게 不法이지만 손을 들어주는 그런 非人間的인 行爲 때문에 民族魂이 썩어 문둥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現在 그런 보기흉한 꼴을 여러 번 봐 왔다. 國民들은 눈을 뜨고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이 소리가 높았다.

(나) 數年前에 韓洋藥 싸움에 民間團體들의 討論席上에서 洋方이 수세에 몰리자 洋藥會長에 이야기가 뭐라고 했던가? "두고보자 選擧때 보자"라고 입에 힘주어 말한 이야기가 무엇을 意味한 것인가 萬若 與黨이 韓藥을 추켜서 손을 들어주면 선거때 여당의 標는 찍어 줄 수 없다고 强力한 메세지를 남긴 것이다.

(다) 우리는 선거나 정치적 目的으로 因하여 國家의 利得을 지워버리는 行爲는 禁物이다. 黨利黨權에 目的을 두고 千年國家大計에 누를 끼치는 政治는 한마디로 말하여 賣國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偉大한 醫藥은 東洋에 哲學이며 人類最初에 仁術이며 五千年 긴 歲月동안 聖祖님들이 애써 물려주신 우리 國家만이 지닌 寶貝이기 때문이다.

(라)우리는 우리것을 지키며 다듬고 가꾸어서 世界속에 으뜸가는 文化遺産으로 지켜야 할것이다. 그것을 政治的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不法을 自行하는 權力者라면 아예 政界에 머물지 말고 退進하여 後孫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우리들의 傳統醫術을 法으로 묶어 놓지말고 和解法 卽 法을 풀어놓고 個個人이 硏究하고 努力하여 發展시킬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할 것이다.

一例를 들면 中國을 보면 私家의 어떤 아녀자가 혼자서 硏究한 中國注射藥은 神秘에 가까울 정도로 놀랄만한 藥을 發明하여 保健省에 그것을 申告하고 政府는 그런 注射藥을 맞아야 될 患者를 모와놓고 注射藥을 硏究하여 만든 아녀자를 불러와서 治癒케하여 患者가 정말 完治가 되었다면 그 女人에게 그 病治藥에 對한 醫師의 資格을 주어서 病古하는 患者를 治療케 하였다.

우리나라 처럼 無資格者와 無許可者 等等 法으로 재재하니 醫術이 發展하기는 커녕 無許可施術 無免許 醫療行爲 等으로 拘束하여 特定業所에 利得만을 爲해주고 年末 年始時에 떡값이나 챙기는 行政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역적들이 아니고 뭣이란 말인가. 法曹界에서도 民族傳來로 내려오는 民間醫術인 針灸와 指壓과 按磨 等을 無醫村 산속에서 行한다고 잡아다가 拘束시키고 벌금을 물리니 이런 政治下에서 人間이 살 수 없다.

農村 壁地에서 아기가 경풍을 할 때 바늘로 아기손을 찔러 피를 조금내면 그 아이는 깨어나서 뛰어논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針術行爲이며 無許可醫療行爲인가 미친 놈들의 밥그릇 다툼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기는 죽어도 좋다는 건가……

急한 患者를 바늘로 찔러서 위급함을 모면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감사한 뜻을 담배와 혹은 술 한병 사다주었다고 醫療行爲를 했다며 告訴를 當하여 獄苦를 치르고 벌금을 물었으니 그런 法은 하루속히 解除시켜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들의 傳統醫術을 갈고 닦아서 世界에 널리 宣傳하여 偉大한 韓國傳來醫術이 월등함을 알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筆者는 數日前에 謀新聞에서 어떤 判事分이 세미나에서 우리의 傳統古有針術을 民間療法으로서 數千年 내려온 것을 구태여 不法으로 낙인을 찍어 拘束할 생각은 없다라고 한 記事를 읽었다.

그분의 論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 理由인 즉 우리들의 人體를 小宇宙라고 하였다.

宇宙안에는 人間의 能力으로 發見할 수 없는 神秘의 事物들이 數없이 蓄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世上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있듯이 우리 人體에도 發見치 못한 秘穴이 存在하고 있다.

個個人이 針灸에 뜻을 가진 仁術家들이 그것을 發見도 하고 이웃간에 人情上 자기가 가지고 있는 仁術을 急한 患者도 살펴주고 硏究도 하는 것이 바로 針灸術이고 二百年밖에 안된 洋藥 洋醫가 어찌하여 五千餘年된 우리 民族醫術을 悲科學的이며 悲衛生的이라고 비난만 하던 그들이 우리의 醫藥을 自己들의 權域이라고 떠들며 빼앗으려고 하

였던가…….

우리는 우리것을 다루는 傳統醫藥人과 現代科學에 근거를 둔 醫術家와 區別을 두고 서로의 發展을 爲해서는 行政이나 法界에서는 새로운 方法論을 제시하여야만 될 것이다.

三. 和合으로 民間醫術保存을

山野에 自生하는 草木을 聖祖께서는 平食用과 藥用으로 五分하는데 數없는 時間과 歲月을 보냈다.

어려움에 處했을 때는 수긍을 하시고 山水間 淨潔한 곳에 隱身하시어 數個月씩 神과 靈感으로 交着하여 對談하여 그 藥性을 익혀온 寶玉을 우리代까지 五千年을 지탱하여 왔다.

五千年과 二百年 그 엄청난 時空을 超越한 認耐는 어찌 二百年 科學醫術만 못할 것인가 歷史는 말없이 흐르지만 그 記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數千年後에도 來歷은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中國에 본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傳統民間醫術을 養成해야 한다 1965年 以前까지 官認 針灸學院을 履修한 針灸界 人士가 무려 數十餘萬이 있으나 行勢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法이 許容하는 海外에 나가서 業을 하거나 或은 그 나라에서 許可證을 取得하여 國內에 가져 왔으나 여전히 不許하기 때문에 수 많은 달러를 낭비하고 헛수고만 했으니 그 損害가 얼마인가.

우리는 精神을 바짝 차리고 傳統民俗 醫術法과 仁術을 最大로 發展시켜서 世界속에서 一等 醫術의 나라임을 알리는데 主力을 해야할 것이다.

再言이 不要하지만 제발 밥그릇 싸움을 피하여 저속한 民族의 탈을 벗어던지고 떳떳한 白衣民族이요, 檀君聖祖님의 後孫임을 자랑하며 살아 가야 할 것이라!

1999年 8月 17日

(社團法人 傳統文化宣揚會 理事長 韓藥業士 詩人 경북영양)